

# 해방공간에서의 부산지역 연극운동

민 병 옥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 目 次

- I. 문제의 제기
- II. 동시대 연극운동과  
부산지역에서의 실천
- III. 동시대 부산지역 연극운동과  
자생적 실천
- IV. 결 론

## I . 문제의 제기

해방공간에서 부산지역 연극운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sup>1)</sup>은 실증주의적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지역적 특수성과 국가적 보편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곧 부산지역이 한국 도시의 일반성과 부산의 지역적 특수성을 갖고 있듯이, 부산지역 연극은 한국연극의 보편성과 부산지역적 특수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산지역 연극운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수성 → 국가적 보편성’과 ‘지역사 → 민족사’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정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특성의 발견을 통하여 특정 지역 특유의 특정한 문화를 이해하는 지역연구와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발견을 통하여 어떤 지역에도 통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체계화하려는 지역과학<sup>2)</sup>을 방법론으로 하여 본고는 해방공간에서의 부산지역 연극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곧 본고는 해방공간에서의 부산지역 연극운동을 한국연극운동의 보편성과 부산지역의 특수성을 통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1) 해방공간에서의 부산지역 연극 및 연극운동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에는 다음과 같다.

구명옥, 『광복기 부산 경남 지역의 연극』, 『작가와 사회』 (20호, 2005 가을호), pp.43~60.

\_\_\_\_\_, 『부산경남의 지역연극운동 연구』, 부산대대학원, 2006.2 (박사학위논문)

민병욱, 2006. 12. 「근대 이후 부산지역 연극의 현황과 정체성」, 『2006 부산학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pp.183~236.

2) 본고에서는 방법론으로서 지역과학과 지역연구는 다음의 저서에서 힘입은 바 크다.

C.Gore(1997), 고영중 외 역, 『현대지역이론과 정책』, 한울

J.R.Short(2001), 이현욱 외 역, 『문화와 권력으로 본 도시탐구』, 한울

D.C.Pocock, Humanistic Geography and Literature, Indiana Univ. Press, 1992.

## II . 동시대 연극운동과 부산지역에서의 실천

### 1. 동시대 연극운동의 현황

해방공간은 일제의 패망으로 인하여 한 지배세력이 쫓겨 가고 다른 두 개의 지배세력이 진주한다는 사실<sup>3)</sup>에서 출발한다. 물론 두 개의 지배세력이란 미국과 소련이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결코 양존할 수 없는 대립적인 지배이데올로기이다. 해방공간은 이러한 대립적인 이데올로기가 서로 헤게모니를 장악해가려는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예술은 물론 연극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모든 예술은 운동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동시대 연극운동<sup>4)</sup>의 첫 출발은 좌익에 의해서 시작된다. 해방이 되자마자 송 영(위원장), 안영일(서기장), 김승구, 김태진, 나 응, 박영호, 이서향 등이 조선연극협회를 접수하여 조선연극건설본부(이하 '연건')를 조직하여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에 산하를 둔다. '연건'의 조직문제와 정론에 반기를 든 나 응(위원장), 신고송(중앙집행위원), 강 호, 김 응, 박영호, 송 영 등은 1945년 9월 28일 조선프로레타리아연극동맹(이하 '연맹')을 조직하고 서울 예술극장, 일오극장, 자유극장, 청포도, 해방극장, 혁명극장 등

3) 오기영, 1948. 1, 『UN과 조선독립』, 『신천지 3-2』,

4) 동시대 연극운동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지를 참고할 것.

이석만, 1996. 『해방기 연극 연구』, 태학사,

현재원, 2000. 『해방기 연극운동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박사학위논문),

박영정, 1997. 6 『해방기의 연극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극예술학회』 (제7집), , pp.163-201.

백현미, 한국창극사 연구, 태학사, pp.333~356.

극단을 산하에 둔다. ‘연건’과 ‘연맹’으로 나누어져 있던 좌익연극은 남로당의 지침에 의하여 1945년 12월 20일 조선연극동맹(이하 ‘동맹’)으로 통합하여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 직전까지 활동하다가 폐쇄된다. ‘연건’에서 ‘동맹’에 이르는 동안, 좌익연극운동의 가장 중요한 실천방침은 연극대중화이다. 연극대중화<sup>5)</sup>는 각 지역에 문화공작대를 파견하여 종합예술제를 개최하는 것이다. 곧 남한 각지에 문화공작대를 4대로 편성하여 1개월간 담당지역을 순회공연 한다. 특히 부산 경남지역에는 1947년 6월 30일 유현을 위원장으로한 제 1대가 파견된다.

해방공간에서 좌익연극운동의 이러한 활동과 달리 우익연극운동은 1947년 8월 13일 조선문학동맹이 폐쇄되고 좌익계열이 검거되기까지 연극단체의 조직과 운동성을 갖지 못한다. 곧 우익계열에서는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1947.12.2)가 결성되기 전까지 개별적인 극단의 창단과 공연활동을 한다. 곧 민족예술무대(1945.10), 전선(1945.11), 토월회(1945.12), 백화(1946.1), 극예술원(1946.12)과 이를 해산하고 새롭게 창단한 극예술협회(1947.5), 신지극사(1947.10), 신청년(1947.10), 대중극회(1948.1) 등 극단이 그것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창단과 공연활동은 1947년 좌익계열 연극인들의 검거에 따라서 연극과 연극운동이 전반적인 침체를 겪게 되자 1947년 10월 29일 전국연극예술협회(이하 ‘연협’)의

5) 연극대중화론은 1947년 1월 31일 조선연극동맹 중앙위원회의 결정서에 의하는 바, 결정서는 소극장 공연, 동맹의 지방지부 결성과 연극씨클 활동의 강화, 회극부의 활동 강화, 예술주의의 경계 등으로 구체화 된다. 아울러 1947년 1월 제 1회 종합예술제, 동년 3월 제 2회 3·1기념공연, 동년 7월 제 1회 자립극경영대회와 제 1차 문화공작단 파견으로 실천된다. 「연극운동의 대중화」, 독립신문, 1947.2.4

결성으로 이어진다. ‘연협’은 유치진을 위원장으로 하여 고향, 극예술협회, 극우, 삼문, 신민, 신지극사, 신청년, 전진, 청춘, 태평선, 호화선, 황금좌 등의 극단을 입회하였다. 극예술협회, 신지극사, 신청년을 제외한 입회 극단들은 대중극단이면서 지방 중심의 흥행단체이다. 이러한 대중 흥행 극단은 전국을 순회공연하게 되며, 부산 경남지역에서도 공연활동을 하게 된다.

대중극단과 순수연극단으로 이루어진 ‘연협’은 1948년 8월 남한의 단독정부수립 이후 연극계의 체계모니 장악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연협’은 국악, 악극, 무용 등 다른 협회를 근간으로 하여 유치진을 위원장으로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 ‘한국무대예술원’(이하 ‘무대’)을 발족한다. 1948년 4월 ‘무대’ 산하 30개 극단을 문화계몽대로 각 지방에 파견하여 이른바 5.10선거 선전극을 공연하게 된다.

‘연협’결성의 한 축을 담당한 대중극단은,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신파극단, 1946년 이후에는 서양음악의 영향을 받은 악극단, 1948년 이후에는 판소리계열의 국극단으로 관객대중의 관심을 얻어간다.

1945년 해방 이후 신파극단은 해방 전 예원좌를 개칭한 청춘극장(1945.10.11 창립), 해방 전 극단명을 그대로 계승한 황금좌(1946.6.11 창립)와 호화선(1947.4.22 창립) 등은 지방순회공연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서 활발한 공연활동을 한다.

악극단은 1946년 1월 17일 남양민, 박 구, 이 익을 발기인으로 하여 악극단동맹결성대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조선가극협의회(1946.8.3), 조선가극협회(1947.11.5)를 결성한 뒤 발전적 해체를 하고 ‘연협’과 함께 ‘무대’(1948년 2월)의 결성에 참가한다.

1948년 4월 ‘총선거선전문화계몽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악극단은 동년 4월 9일에서 5월 5일까지 803회의 지방순회공연과 1,334,64명의 관람인원<sup>6)</sup> 동원이라는 성공을 거둔다.

국극단은 해방 직후 국극사, 김연수창극단, 국극협회, 조선창극단, 여성국악회 등을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6.25전쟁으로 해체되었다가 1951년 이후 여성국극단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같이 동시대 한국연극계는 좌/우익계열의 연극운동이 서로 참여한 대립으로 견제하다가 1948년 8월 남한의 단독 정부수립으로 인하여 해계모니를 장악한 우익계열이 다시 순수연극과 대중극 간의 대립으로 분화된다. 이 과정에서 좌/우익 계열 극단들은 각 지역을 순회 공연함으로써 부산지역에서도 공연이 이루어진다. 더구나 부산지역 연극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자생적인 연극(운동)을 주도했던 현 철(부산), 유치진(통영), 이광래(마산) 등이 서울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침체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서 부산지역에서 연극활동은 서울지역 극단의 순회공연으로 명맥이 이어지며, 프로극과 순수극 및 대중극 공연이 이루어진다.

## 2. 연극운동체의 부산지역 순회공연

부산지역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연극공연<sup>7)</sup>은 좌익계열의 프

---

6) 김서민, 『한국연예인만공운동사』, 예술문화진흥회, 1989, 24쪽.

7)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진 순회공연에 관해서 다음 논저를 참고로 하여 오류 부분을 정정하여 작성함.

구명옥, 앞의 논문, pp.35~48.

이석만, 앞의 책, pp.20~33, 128~144.

로극이다.

프로극 공연은 먼저 프로극단의 지부 결성으로 시작된다. 1945년 9월 28일 ‘연맹’이 결성되면서 산하 극단으로 인민예술좌를 두자 곧 이어서 부산지역에서 그 지부를 설치한다.

빛나는 해방 조선의 신문화를 건설하고자 이번에 동경 축지 소극장시대에 활약하던 수인이 동인이 되어 인민예술좌를 조직하고 남선일대에 활발한 예술운동을 전개하기로 되었다. ... (中略) ... 자체 조직을 강화하면 중앙의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지부로서 한층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터이므로 연극문화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연극단체 혹은 동인은 동좌의 사무소인 釜山府 本町 4丁目 25番地로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sup>8)</sup>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민예술좌의 조직 그 자체이며, 그 극단의 조직 내용, 연극활동, 공연활동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동시기에 보다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적어도 1946년 11월 김정한의 희망좌가 결성되기 이전 프로극단의 부산지역 순회공연이 활발히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 순회공연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

8) 앞으로 참고텍스트의 본문을 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미가 어긋나지 않는 한 현대식 표기로 바꾸어서 인용할 것임. 「진정한 문화수렵코저 인민예술좌 활동개시」, 『민중중보』, 1945.10.3

공연일정	공연극단	공연작품(작가)	비고
1946. 1. 1 ~ 1.15	해방극장	「어머니」(고리키) 「생명의 길」(신고송)	
1946. 1.28 ~1.30	혁명극장	「북위 38도」(박영호) 「번지없는 부락」(박영호)	
1946. 3. 4		「철쇄는 끊어졌다」(신고송) 「낙동강」(노재0)	3.1운동기념 예술제전
1946. 3.24 ~3.28	혁명극장	「님」(박영호)	박춘영 연출
1946. 4.10 ~4.11	조선예술 극장	「3.1운동」(김남천)	안영일 연출
1946. 5. 8 ~5. 9	서울예술 극장	「독립군」(조영출)	나 용 연출
		「옥문이 열리는 날」(한홍규)	이서향 연출

도식에서와 같이 해방이후 부산지역에서 순회 공연한 극단은 ‘연맹’ 산하 극단들이거나 동일한 계열의 극단들이다. 물론 ‘연맹’ 산하 극단들이 전부 지역순회공연을 한 것은 아니다.

1945, 6년 ‘연맹’ 산하 극단들의 공연작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9)</sup>

9) 도표는 다음 저서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진순, 『한국연극사(1945~1970)』, 대한민국예술원, 1977, pp.173~183



극단	주요 작품(작가)
해방극장	「어머니」(고리키), 「피흘린 기억」(허 경)
혁명극장	「북위 38도」(박영호), 「번지없는 부락」(박영호), 「님」(박영호), 「세 동무」(김태진), 「힘자없는 소년들」( 김태진)
조 선 예술극장	「고향」(이기영), 「향연」(오영진), 「3.1운동」(김남천), 「임진왜란」(김태진), 「논개」(조영출), 「녹두장군」(박로아)
서 울 예술극장	「남부전선」(시모노프), 「독립군」(조영출), 「옥문이 열리는 날」(한홍규)
일오극장	「직공」(하이엘만스), 「단종애사」(김 건)
청포도	「초원의 제전」(한병옥), 「8.15 전야」(문철민)
무대예술 연구회	「뎃드 엔드」(시드니 킹스레이)
낙랑극회	「군도」(쉴러), 「기미년 3월 1일」(함세덕), 「산적」(함세덕), 「뇌우」(조우), 「봇돌이의 군복」(김사랑), 「바람부는 시절」(임선규)
자유극장	「망향」(진우촌), 「무지개」(박로아), 「선구자」(박로아), 「민중전」(김영수), 「유랑 삼천리」(임선규)

‘연맹’의 산하 극단과 그 공연작품에서 본다면 부산지역에 순회 공연을 한 프로극단에는 해방극장, 혁명극장, 조선예술극장, 서울예술극장, 극단 전선이 있는 반면 공연하지 않은 극단에는 일오극장, 청포도, 무대예술연구회, 낙랑극회, 자유극장이 있다. 부산지역을 처음으로 순회 공연한 프로극단은 해방극장이다. 해방극장은 ‘연맹’의 산하 극단이면서 조선혁명자구원회<sup>10)</sup>의 직속

극단으로 위원장 신고송, 서기장 이유신, 문예부 김 건, 연출부 김 옥, 연기부 노재신, 신현균, 이재덕, 이정자, 최계순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1945년 11월 7일 해방극장은 고리키의 「어머니」를 김 건 각색, 신고송 연출로 창단공연을 가진다. 그 후 해방극장은 경남해방운동자구원회<sup>11)</sup>(문화부장 김정한)로부터 1945년 12월 19일부터 1946년 1월 18일까지 초청을 받아서 부산을 비롯하여 동래, 울산, 언양, 마산, 진주, 삼천포, 통영을 순회 공연하게 된다. 해방극장의 부산 공연은 1946년 1월 1일에서 15일까지 이루어지는 바, 공연작품은 「어머니」(고리키)와 「생명의 길」(신고송)이다. 이 가운데 특히 「어머니」(고리키)는 한 평범한 노동자가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강인한 전사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효시가 된 작품이다.

해방극장에 이어서 혁명극장도 부산지역을 순회공연 한다. 혁명극장은 1945년 10월 무렵 연출부 박춘명, 장치부 김일영, 연기부 강노석, 김양춘, 김연실, 박제행, 심 영 등으로 조직하여 「번지 없는 부락」(박영호)으로 창립 공연을 한다. 이어서 「복위 38도」로 제 2회 공연(1945.11.27)을 하고 그 작품과 창립 공연작품 「번지 없는 부락」을 가지고 부산지역 순회공연(1946. 1.28~1.30)을 가진다. 제 3회 공연(1946.3.4)도 「님」(박영호)을 올리면서

10) 1946년 1월 반일운동자후원회(위원장 이 영)로 개칭한 조선혁명자구원회는 1945년 10월 5일 서울에서 결성되면서 전국에 지부를 설치한 좌익단체로서 조선공산당의 자금지원단체이다.

11) 이 구원회는 동래중학(현재 동래고등학교)의 항일투쟁사 가운데 일제에 저항하다가 옥고를 치른 투사나 수감자의 가족을 돕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이다. 이 단체가 해방극장을 초청한 것은 문화부장 김정한과 그 극장의 위원장 신고송이 1931년 11월에 결성된 사회주의예술단체 동지사의 발기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작품으로 부산지역 순회공연(1946. 3.24)을 가진다. 제 1회에서 제 3회까지 공연한 작품들 「번지없는 부락」, 「북위 38도」, 「님」은 혁명극장의 대표 작품으로서 부산지역의 순회공연작품이기도 하다.

혁명극장에 이어서 조선예술극장도 부산지역을 순회 공연한다. 조선예술극장은 연출부 안영일과 이운용, 문예부 김태진, 송영, 이강복, 연기부 김동규, 남궁연, 박영신, 엄미화, 미술부 강호로 조직되어 1945년 11월 25일 「고향」(이기영 원작, 안영일 연출)으로, 1946년 3월 1일 「3.1운동」(김남천 원작, 안영일 연출)으로 창립공연과 제 2회공연을 한다. 이 극단은 제 2회 공연을 가지고 1946년 4월 10일 부산지역 순회 공연을 한다.

조선예술극장에 이어서 서울예술극장도 부산지역을 순회 공연한다. 서울예술극장은 1945년 10월 22일 배우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성된 극단이다. 이 극단은 연출부 나웅과 이서향, 극작부 김승구, 윤세중, 미술부 강호, 연기부 박학, 송추연, 유량, 유경애, 이동호, 임효은, 최승이, 태을민 등으로 조직되어서 「남부전선」(시모노프 원작, 이서향 연출)으로 창립공연(1945.12.24), 「독립군」(조영출 작, 나웅 연출)으로 제 2회 공연(1946.2.26)을 가진다. 이어서 제 2회 공연작품 「독립군」(조영출 작, 나웅 연출)에 「옥문이 열리는 날」(한홍규 작, 이서향 연출)을 가지고 부산지역 순회공연(1946.5.8~9)을 한다.

이와 같이 부산지역을 순회 공연한 극단은 '연맹' 소속 극단들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극단으로서 함세덕의 낙랑극회를 비롯하여 조현의 일오극장과 극단 청포도, 해방 이전 신파극단 청춘좌와 성군이 결합하여 '연

맹'의 노선을 따르던 자유극장은 부산지역 순회공연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산지역 순회공연을 한 프로극단은 '연맹' 소속의 일부 극단들이며, 일회성 공연으로 순회할 뿐이다.

이 밖에도 동시기 부산지역을 순회 공연한 극단에는 다음과 같다.

공연일정	극 단	작 품(작가)
1946.1 (중순)	극단 전선	「호집」 (김사량)
1946. 1.30~2. 1	민중극장	「태양없는 거리」 (박 한), 「레미제라블」 (윤백남 각색)
1946. 1.24~1.25	극단 등대	「결정」 (이일림), 「가는 길」 (이일림)
1946. 3.12	상아탑극단	「운명의 반역자」 (김태진), 「광명을 찾는 사람들」 (김태진)
1946. 3.13~14	장안무대	「홍길동(연쇄극)」 (권일청 연출)

도식에서 극단 전선은 1945년 10월 창단한 민족예술무대와 함께 대표적인 우익계열의 극단이다. 전선은 김동혁, 이화삼, 장계원, 허 남을 동인으로 하여 1945년 11월 「검찰관」 (고골리 원작, 허 집 연출)로 창단공연을, 동년 12월 31일 「호집」 (김사량 작, 김 이식 연출)로 제 2회 공연을 한다. 이어서 전선은 제 2회 공연작품을 가지고 부산지역 순회공연을 한다.

1947년 8월 13일 조선문학동맹이 폐쇄되고 좌익계열이 검거되기까지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익계열 연극운동이 부산지역 순회공연을 거의 가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동시대 좌/우익 간의 연극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대립 속에서

부산지역에서는 민중극장, 장안무대와 같은 상업극단의 순회공연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무대’의 ‘총선거선전문화계몽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악극단이 1948년 4월 9일에서 5월 5일까지 803회의 지방순회공연과 1,334,64명의 관람인원<sup>12)</sup> 동원이라는 성공을 거둔 것에서 확인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동시대 부산연극계는 적어도 1953년 휴전까지는 대중극단의 순회공연이 중심을 이루는 한편,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전에는 좌익계열의 프로극, 그 이후에는 우익계열의 순수극의 순회 공연으로 이루어진다.

### Ⅲ. 동시대 부산지역 연극운동과 자생적 실천

#### 1. 연극사적 배경으로서 학생극<sup>13)</sup>

1945년 8.15 해방은, 일제강점기 사회와 마찬가지로, 반제와 반봉건의 시대정신을 지향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매개

---

12) 김석민, 앞의 책, p.24

13) 본고에서는 학생극(운동)을 전문연극(운동)의 전사적 배경으로서 다룰 것이다. 부산지역연극(운동)사 뿐만 아니라 한국연극(운동)사, 1930년대와 해방공간에서는 학생극(운동)을 동시대 연극(운동)의 한 흐름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유치진을 비롯한 극예술협회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순수극운동론자들은 언제나 학생극의 주도세력들과 사회문화적 동일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의식적 제휴를 통하여 자기집단으로 귀속시키고 통제하면서 다른 연극운동체에 대한 대타의식, 봉쇄의식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논법을 강화하고 있다. 학생극(운동)은 연극(운동) 지향성의 차이, 전문 연극운동체가 아니라 아마추어리즘적 소인극적 공연(단체)에 가깝다. 1930년대 학생극(운동)에 대한 신극운동론자들의 정치적 논법은 다음 논문에서 상론한 바 있다.

민병욱, 「카프연극비평의 소통론적 연구」, 『한국민족문화 10』,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77, pp.265~312.

하고 있는 친일의 문제<sup>14)</sup>에서 가장 자유로운 영역에 학생들이 있다. 해방 이후 학생들이 가장 당면한 것은 학병 문제를 비롯한 반일학생세력에 대한 후원의 문제이다. 그 후원은 이념의 헤게모니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화, 특히 연극에 의해서 마련된다.<sup>15)</sup> 이런 의미에서 부산지역도 학생극(운동)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부산지역 학생극의 첫 출발은 반일학생세력에 대한 후원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래중학<sup>16)</sup>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시작은 1946년 6월 1일 동래중학 학부모와 시민을 대상으로 동래극장에서 열린 예술제에서 공연된 「뉘」인 바, 그 공연실체를 이해하

14) 일제강점기와 해방의 매개영역으로서 친일문제에서 본다면 좌/우익계열의 기성 연극예술가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예컨대 좌익의 대표적인 연극인 박영호, 우익의 대표적인 연극인 유치진은 친일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해방 이후 연극예술가들은 좌/우익의 선택을 친일문제를 정당화 하거나 소멸시키는 계기로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특히 신파극단을 비롯한 대중극 주도세력들은 이념적 선택도 없이 '연맹' 산하 극단에서 활동하지만, 창극의 주도세력들은 이념 그 자체를 제거하고 대중에 함몰하고 있다. 아울러 우익계열의 극단 전선이 김사량과 그의 작품 「호접」을 공연하거나 '연맹'의 맹원들을 동인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연극이 이념에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념의 혼합지역에서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념의 헤게모니는 일제강점기의 가장 커다란 정신적 상처 친일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방어기제이다.

15) 예컨대 1945년 12월 결성된 조선학병동맹은 '강제 학병사건을 예술로 化하여 세상에 보고하고자' 같은 달 10일부터 13일까지 피흘린 기억을 공연하고, 1946년 5월 결성된 전국학생연극총연맹실천본부는 '학도들의 순전한 정열로써 극예술을 통해서 국민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학생극장을 조직'한다. 1946년 5월 보전전문학교에서부터 연극반이 결성되면서부터 대학연극부의 결성이 이루어지고, 1946년 1월 중앙중학교에서 연극부의 결성과 창립공연으로 중학교연극부의 결성이 이루어진다.

안광희, 「해방기 학생극운동」, 『공연예술연구소논문집 2』, 단국대 공연예술연구소, 1996, pp.62~102.

16) 부산지역에서 항일학생투쟁은 동래중학에서부터 시작된다. 동래중학의 항일역사는 부산학생운동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른바 노다이사건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동래고등학교 80년사』, 동래고등학교총동창회, 1978, pp.157~325.

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7)</sup>

연극제목 : 녀  
극 작 가 : 교사와 학생의 공동구성  
지도교사 : 이시우  
연 출 : 이필우  
참여학생 : 이지구 외  
지원교사 : 문인갑 외  
공연장소 : 동래극장, 동래중학 강당  
공연일시 : 1946.6.1

텍스트의 공연사항에서 ‘해방 이후의 학생극’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지도교사 이시우(1918~1995)이다. 그 주목은 그가 일본대학 예술학부 출신<sup>18)</sup>이라는 것이다. 당시 좌익 계열의 연극인들이 운동으로서의 연극단체를 결성하고 있을 때, 순수연극론자들은 개별적으로 학생극지도에 노력을 기울인다. 1946년부터 대학에서는 보성전문학교연극부를 비롯하여 경성대

17) 『부산연극사』, 경성대학교 공연예술연구소, 1991, p.390.

18) 이시우에 관해서 일본대학 출신이라는 공통된 지적이 있지만, 그가 법문학부 출신인지 예술학부 출신인지, 서양사 교사인지 미술교사인지에 관해서는 일치된 견해는 없다. 분명한 것은 그가 부산지역 최초의 미술평론가이면서 연극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서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단지 일본대학의 홈페이지에 실린 학교연혁을 보면 그 대학은 일본법학교로부터 시작했으며, 이시우가 그 대학에 다닐 때 법문학부, 예술학부가 없고 미학부(현재 예술학부)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미술평론가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는 미학부에 다녔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단정짓기란 어렵다. <http://www.nihon-u.ac.jp/indexs.shtml>  
신태범, 「신태범의 부산문화야사(82)- 미술평론가 이시우」, 국제신문 2001.7.24  
주정이, 「화가 주정이의 부산미술이야기(11)- 화단의 선비 이시우」, 국제신문 2005.9.11

학연극부, 배영대학 극예술연구회, 국학전문학교연극부 등이 결성되고, 중등학교에서는 중앙중학교, 대구 대륜중학교, 배재중학교, 동래중학교, 부산고녀 등에서 연극부가 결성된다.<sup>19)</sup> 이 과정에서 1946년 12월 29일 일본대학 예술학부 출신들이 ‘민족문화 창건을 위한 예술문화의 확립과 구체적 실천’이라는 목적 아래 문학, 음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등 6부를 하위조직으로 한 예술과연맹<sup>20)</sup>을 결성한다. 예술과연맹은 그 첫 사업으로 1947년 3월 ‘신기법에 의한 연극의 제 1차 실험공연’을 가질 것으로 계획한다. 일본대학 예술학부 출신의 이러한 예술적 실천과 그 학부 출신인 이시우의 동래중학의 연극공연 지도도 동일한 문맥 속에 있다.

「뉘」의 공연 이후, 1947년 동래중학 연극부<sup>21)</sup>가 결성되면서 이주홍의 「대차」, 「청춘기」, 「탈선 춘향전」, 「호반의 집」, 함세덕의 「갈매기」, 「아버지는 사람이 저래(=원제: 감자와 여선생)」 등을 공연함으로써 부산지역 학생극을 활성화 된다.

동래중학 연극부를 시작으로 하여 부산고녀연극부(1946.6)의 「벗뜰의 군복」(김사랑), 「조국」(홍달), 부산상업실천학교(1947. 5.10~11)의 「백설공주」, 부산공립중학연극부(1947.12.23~24)의 「푸른 날개」(정철민) 공연이 이어진다.<sup>22)</sup>

중학연극부의 이러한 학생극은 대학극, 곧 1949년 10월 부산대학교 연극부의 창립공연, 1953년 수산대학교 연극부이 창립공연으로 이어지면서 학생극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된다.

19) 안광희, 「해방기 학생극운동」, pp.78~80, 98~99.

20) 독립신문, 1947.1.4., 민주일보, 1947.1.4., 일간예술통신, 1947.1.8

21) 이주홍, 「석각과 34년」, 『윤좌 12』, 1981, p.74.

22) 안광희, 「해방기 학생극운동」, pp.98~99.



## 2. 김정한의 희망좌

**창단 배경 :** 부산지역에서 창립된 최초 근대 극단은 요산 김정환이 경남해방운동자구원회(이하 ‘구원회’) 문화부장으로 재직할 때 만든 희망좌이다.

희망좌 창단의 모체인 ‘구원회’는 반일학생세력에 대한 후원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래중학의 항일투쟁<sup>23)</sup>과 관련있다. 즉 ‘구원회’는 일제 강점기 항일투쟁으로 희생된 동래중 학생이나 그 가족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다. 이러한 ‘구원회’에서는 문화부장 김정환이 ‘연맹’의 산하 극단이면서 조선혁명자구원회의 직속 극단 해방극장을 초청하여 부산지역 순회공연을 가진다. 1945년 11월 7일 고리키의 「어머니」를 김건 각색, 신고송 연출로 창단공연을 가진 해방극장은 경남해방운동자구원회(문화부장 김정환)의 초청으로 1946년 1월 1일에서 15일까지 부산지역 순회공연을 하게 된다. 해방극장의 순회공연에 이어서 동년 10월 희망좌가 설립된다. 이러한 희망좌의 설립에는 조선혁명자구원회의 신고송과 경남해방자구원회의 김정환 간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

신고송과 김정환 간의 연결고리는 동지사에 있다. 동지사<sup>24)</sup>는 KAPF(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와 KOPF(일본프로레타리아문화연맹)를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1931년 11월경 결성된 문화운동체이다. 동지사는 서기국, 편집부, 조직부, 경영부와 산하

---

23) 부산지역에서 항일학생투쟁은 동래중학에서부터 시작된다. 동래중학의 항일역사는 부산학생운동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른바 노다이사건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동래고등학교 80년사』, 동래고등학교총동창회, 1978, pp.157~325.

24) 민병욱, 『일제 강점기 제일 한국인의 연극운동』, 연극과 인간사, 200, pp.35~37.

영화, 연극, 음악, 미술의 5개 부문과 산하 동경조선어극단으로 조직되어 있다. 신고송과 김정한은 동지사의 발기인으로 각각 편집부와 조직부에 속하게 된다.

그 이후 1932년 2월에 이르러 동경조선어극단이 PLOT(일본프롤레타리아연극동맹) 동경지부 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하여 동지사는 곧 PLOT에 가입한다. PLOT 가입은 동지사의 해체와 KOPF 가입에 관련된다. 곧 1932년 2월 동지사는 이른바 코민테른의 12월 테제의 영향으로 해체를 선언한다. '일본 내의 조선인 노동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투쟁과 조선 내에서의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원조하기 위한 투쟁'이 자신의 임무이고 곧 PLOT와 그 산하 각 동맹의 임무이므로 동지사는 해산을 선언하고 '일본프롤레타리아문화연맹원으로서 조선협회회의 확립과 그 확대 강화를 위한 투쟁<sup>25)</sup>'에 올라선다. 이에 따라서 모든 재일 한국인 사회문화운동체들은 일본프롤레타리아운동체에 가입하게 된다. 동지사는 KOPF에, 동지사 회원들은 산하 동맹에 들어가고, KOPF는 조선협회회를, 산하 각 동맹은 조선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동경조선어극단도 PLOT에 가입하게 된다.

이 때, 신고송은 KOPF에 가입한 반면 김정한은 KOPF는 물론 KAPF에도 가담하지 않는다. 동지사의 해체와 KOPF 가입문제는 민족문제와 식민지문제에 관한 불일치와 민족차별로 인하여 민족허무주의에 의해 일어난 국제적 연대의 공동화에 관련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서 KOPF 가입문제는 해체론자 김두용과 해체반대론자 김동하를 중심으로 대립적인 구도가 형성되면서 조직의

25) 고준석, 『조선공산당과 코민테른』, 공동체, 1989, pp.90~91.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관련하여 신고송은 해체론에 서 있는 반면 김정한은 해체론에 서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김정한이 동지사의 해체에 따라서 KOPF에 가입하지 않을 뿐 아니라 KAPF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sup>26)</sup>은 해체론자가 아님은 분명하다.

KOPF 가입문제에 관련하여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가졌을 뿐 신고송과 김정한은 동지사의 발기인으로서 이념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에 1945년 해방이 되자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구도 속에서 김정한은 신고송을 초청하고 희망좌를 창단하게 이른다.

**공연활동** : 1946년 10월 경 창단된 희망좌는 오토 뮐러의 「하차」와 그레고리부인의 「달 뜰무렵」을 신고송 연출로 초량 대생좌에서 창립공연을 한다. 이어서 희망좌는 마산순회 공연과정에서 '작품내용의 표현문제'로 인하여 마산미군정당국에 의해서 고발, 제소되고 구속된 연출가 신고송과 출연자 정진업이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자 곧바로 해산하게 된다<sup>27)</sup>.

**공연작품** : 희망좌의 공연작품은 오토 뮐러의 「하차」와 그레고리부인의 「달 뜰무렵」이다.

오토 뮐러의 「하차」는 희망좌가 선택한 첫 작품이다.

작가 뮐러(Otto Müller 1816~1894)는 단 1편의 희곡작품 「런치

---

26) 조갑상, 「김정한의 미공개 단편소설」, 『민족문학사연구 3』, 민족문학사연구소, 1993, p.16.

27) 구명옥, 「광복기 부산 경남지역의 연극」, 『작가와 사회 20』 (2005년 가을호), p.46.

Rienzi」(1839)을 발표한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그의 구체적인 작품 경향과 전기적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 「린치Rienzi」(1839)가 「하차」 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sup>28)</sup>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루마꾼이 구루마를 끌고 가면서 고개를 넘지 못하고 지나가던 귀부인에게 도와 달라고 하자, 귀부인은 자신이 훌륭한 귀부인이기 때문에 무겁겠다고 비웃면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모욕을 당했다고 경관에게 이야기한다.

---

28) 구명옥은 작품 「린치(Rienzi)」(1839)를 희망좌가 공연한 「하차」와 동일한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이렇다. 필러의 유일한 희곡 「하차」가 발표된 1839년보다 4년 전인 1835년 영국작가 리튼(Edward George Bulwer-Lytton, 1803-1873)의 소설 「린치, 마지막 호민관(Rienzi, or the last of the tribunes)」이라는 작품이 발표된다. 이런 의미에서 필러의 「린치」는 그보다 약간 앞선 시기에 발표된 영국소설 「린치, 마지막 호민관」의 각색일 가능성이 크다. 필러가 원래 소설가라는 점으로 보아서는 더욱 그러하다. 만약 각색이 아니라면 두 작품 다 로마의 호민관인 린치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최소한 그 소재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린치, 마지막 호민관」은 호민관 린치의 출세와 몰락을 그리고 있다. 린치는 1347년 로마에서 고대 로마의 모범에 도달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민중봉기 이후 7개월이 못되어서 이교도로 찍혀 퇴직의 압력을 받았다. 린치가 귀족들의 통치를 몰아내려 했으나 콜로나(Colona), 오지니(Orsini), 자벨리(Savelli) 등의 귀족에 의해 추방되었고 계속 귀족들에게 위협 받았다. 7년 후 로마로 돌아와 제기했고 두 번째로 이상적 개혁을 실현하려 했으나 실패당했다. 이 작품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정치적 상황, 린치의 투쟁 등이 작품 속의 형상화에서 부족하고 린치를 너무 이상적으로 그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호민관은 고대 로마시대부터 있어온 것으로서 귀족을 견제하는 평민대표이다. 최고 통수권자로 집정관이 있다면 집정관과 귀족들의 횡포에 대해서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이 호민관(護民官, 즉 백성을 지키는 관리)이다. 즉 호민관은 권력에 맞서는 민중의 대표자이며, 호민관 린치는 민중의 권익을 위해 권력과 싸우다 희생된 영웅인 것이다. 이와 같이 로마의 호민관처럼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싸우다 희생되는 민중의 대표이자 영웅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린치」는 「하차」와 동일한 작품이다. 만약 동일하다면 「하차」는 「린치」의 변안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문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구명옥, 「광복기 부산 경남지역의 연극」, pp.46~47.

경찰관이 교통방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자, 구루마꾼은 구루마를 밀어달라고 하면서 고갯길에 서 있다.

구루마꾼이 자기 가족들이 죽 한 그릇 못 먹고 고생만 하다고 하면서 구루마를 밀어달라고 하자 목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개를 넘는 것이 육신에게는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느님이 주셨다면 영혼에 해를 받지 않도록 명심하고 노동과 신앙은 신성하다고 하면서 그냥 가 버린다.

구루마꾼이 구루마가 너무 무겁다고 하면서 밀어달라고 하자 교수는 구루마의 내용을 인식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신체의 체적을 힘과 관련하여 고찰하여 짐을 덜어 내리라고 하면서 가 버린다.

구루마꾼이 구루마를 밀어달라고 하자, 학생은 샴을 받고 구루마를 밀고 있으며, 자기에겐 무례하기 때문에 거절한다고 하면서 가 버린다.

구루마꾼이 계속 힘들어 하자 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밀어주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간다.<sup>29)</sup>

이 작품은 노동계급의 연대의식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통하여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작품<sup>30)</sup>이다. 1931년 11월 23, 24

29)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박영희가 번역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이 번역대본에 관해서 박영희는 ‘카프동경지부 연극부의 일역과 조선(어)역만 있고 그 외의 원문이나 혹은 참고되는 다른 역이 없으므로 우선 그냥 다소간 개역, 정정을 가하여 발표한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대본은 번역이 아니라 일본어의 중역이며 오히려 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오토 류라, 박영희역, 「荷車」, 『조선지광.92』, 1930.8, pp.51~59.

30) 구명옥은 텍스트를 영국 작가 리튼(Edward George Bulwer-Lytton)의 「런치, 마지막 호민관」을 필러가 각색하여 극작품 「런치」를 쓴 것을 우리나라에서 하차로 번역된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박영희가 번역한 「荷車」와 「런치, 마지막 호민관」 및 「런치」간의 작품줄거리가 너무 다르다는 것에 있다.

구명옥, 앞의 글, pp.47~48.

일 동경조선어극단에서 공연할 당시, 일본 연극비평가 染谷格에 의해서 ‘성공적이며, 극단의 발전이 기대된다’<sup>31)</sup>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텍스트는 「이계의 남」, 「炭坑夫」와 함께 1930년 9월 14일 미나도좌에서 공연됨으로써 국내 프로극의 첫 출발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작품<sup>32)</sup>이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sup>33)</sup>는 1929년 2월 17일 카프동경지부 연극부에서 첫 공연 작품으로 선택된 이래, 동경조선어극단(동지사 산하 극단)과 3.1극장(KOPF 가입으로 인한 동경조선어극단의 개칭)의 가장 중요한 레프터리이다. 국내 프로연극운동의 경우, 1930년 9월 7일 미나도좌에서, 1932년 개성 대중극장에서, 1931년 봄 해주연극공장에서, 1932년 6월 8일 메가폰에서, 1933년 12월 23일 통영 문화좌에서 공연된다. 그리고 1932년 4월 23일 조선연극사에서, 1932년 12월 8일 보전연극회에서 공연된다. 이런 의미에서 텍스트는 제일 한국인 프로연극운동과 국내 프로연극운동에서 공연된 가장 중요한 레프터리이다. 이 작품은 국내 창작극 공연을 중심으로 한 조선예술좌에서부터 거의 무대실연되지 않았다. 따라서 텍스트는 국내프로극운동사와 제일 한국인 프로극운동사에 있어서 매개역할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이다.

31) 倉林誠一郎, 『新劇年代記(戰前編)』, 백수사, 1972, p.449.

32) 이 작품들은 최승일의 연출에 의해서 미나도좌에서 공연된다. 그 공연에 관해서 ‘프롤레타리아연극의 첫 행진’이라는 박영희의 평가를 둘러싼 민병휘, 박영호, 설희, 신교송의 논쟁이 일어난다.

민병욱, 「카프 연극비평의 소동론적 연구」, 『한국민족문화.10』,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12, pp.17~18.

33) 민병욱 편저, 『한국연극공연사연표』, (국학자료원, 1997), pp.177-178

倉林誠一郎, 『新劇年代記(戰前編)』, p.449.

희망좌에서 창립 공연작품으로 텍스트를 선택한 것은 그 주제가 노동계급의 연대의식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조합의 중요성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대 프로극운동의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것이다.

「하차」와 함께 선택한 희망좌의 공연작품은 그레고리부인의 「달 뜰무렵」이다. 극작가 그레고리부인(Lady Gregory 1852~1932)<sup>34)</sup>은 예이츠(W.B.Yeats 1865~1933)와 함께 민족문화운동으로서 아일랜드연극운동을 주도한다. 그녀는 아일랜드연극운동의 전용극장 아비극장(Abbey Theatre)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헛소문퍼뜨리기 Spreading the News(1904)」, 「달이 떠오를 때 The Rising of the Moon(1907)」, 「양로원 The Workhouse Ward(1908)」, 「감옥문 The Goal Gate(1906)」, 「용 The Dragon(1919)」, 「나그네 The traveling Man(1910)」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아일랜드의 전통문화를 연극으로 형상화 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한 것이다.

「달이 떠오를 때 The Rising of the Moon(1907)」는 애국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바, 어두운 부두가에서 경관과 지명수배된 혁명가가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경관은 그가 당국이 쫓고 있는 범인임을 알면서도 동족이기 때문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곧 텍스트는 아일랜드민중에게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단결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실주의적인 작품이다<sup>35)</sup>.

34) P.Hartnoll eds., The Oxford Companion to the Theat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353.

F.N.Magill, Critical Survey of Drama, Salem Press, 1985, pp.847~856.

이근삼, 『서양연극사』, 탐구당, 1980, pp.306~309.

35) F.N.Magill, Critical Survey of Drama, pp.851~852.

텍스트는 海兒에 의해서 「달뜰 때」(『개벽』, 1921.10)로, 최병한에 의해서 「월출」(『대중공론』, 1930.6.1)로, 최정우에 의해서 「월출」(『조선일보』, 1931.10.3~10.15)로 번역되었으며, 1929년 2월 17일 카프동경지부에서 최병한 연출로 공연된 바 있다.

희망좌에서 텍스트를 선택한 것은 그 주제가 좌/우익의 이념 대립으로 일어나고 있는 동시대 사회분열에 대한 민족애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극운동사적 의의 :** 극단 희망좌는 동시대 사회적 혼란상황에서 연극을 통하여 민족정신과 민족단결을 운동명제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부산지역 근대연극운동사의 첫 출발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 3. 전문연극운동체의 성립과 전개

희망좌에 이어서 학생극 주도세력이 전문연극에 참여하기 시작하자 1947년 문예신문사가 주관하는 문인극회가 결성된다. 문인극회는 제 1회 「민족의 태양」(염주용 작, 김수돈 연출)을, 제 2회 「동래성 함락의 날」(염주용 작, 김수돈 연출)을 전국 순회 공연한다.<sup>36)</sup>

이러한 문인극회의 결성에 이어서 전문연극운동체의 활동은 6.25전쟁 이후에 가능해진다. 부산지역에서는, 전쟁 전에는 보도연맹문화실과 경상남도문화실이 공동주관한 국민예술제에서 연극이 공연되기도 하며, 전쟁 중에는 육해공군정훈대의 연극공연,

36) 주 17)의 글, pp.401~402.



극단 신희의 연극공연이 이루어진다. 특히 임시수도 부산에서 극단 신희의 활동으로 인하여 부산지역연극은 거의 사라진다. 부산연극이 다시 지역연극으로서의 독자성을 가지는 것은 전쟁 이후에 가능해진다.

#### IV. 결 론

본고는 지역과학과 지역연구의 방법론을 통하여 해방공간에서의 부산지 연극운동을 살펴본 바, 그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 1) 해방공간에서의 부산지역 연극운동은 한국연극운동의 보편성과 부산지역의 특수성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 2) 해방공간에서 부산지역 연극활동은 서울지역 극단의 순회공연으로 명맥이 이어지며, 프로극과 순수극 및 대중극 공연이 이루어진다.
- 3) 부산지역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연극운동은 좌익계열의 프로극운동이며, 1945년 9월 28일 조선연극동맹이 결성되면서 산하 극단으로 인민예술좌를 두자 곧 이어서 부산지역에서 그 지부를 설치한다.
- 4) 동시대 부산연극계는 적어도 1953년 휴전까지는 대중극단의 순회공연이 중심을 이루는 한편,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전에는 좌익계열의 프로극, 그 이후에는 우익계열의 순수극의 순회 공연으로 이루어진다.
- 5) 부산지역 순회공연을 한 좌익계열의 프로극은 조선연극동맹

소속 극단들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 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극단인 함세덕의 낙랑극회, 조 현의 일오극장, 극단 청포도, 자유극장은 순회공연을 하지 않는다.

- 6) 1947년 8월 13일 조선문학동맹이 폐쇄되고 좌익계열이 검거되기까지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익계열 연극운동이 부산지역 순회공연을 거의 가지지 못하는 바, 극단 전선이 1945년 11월, 동년 12월 31일 부산지역 순회공연을 한 것이 유일하다.
- 7) 동시대 좌/우익 간의 연극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대립 속에서 부산지역에서는 민중극장, 장안무대와 같은 상업극단의 순회공연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았다.
- 8) 부산지역 학생극의 첫 출발은 반일학생세력에 대한 후원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래중학에서부터 시작되며, 부산고녀연극부, 부산상업실천학교, 부산공립중학연극부 등의 공연이 이루어지며, 1949년 10월 부산대학교 연극부의 창립공연, 1953년 수산대학교 연극부의 창립공연으로 이어지면서 학생극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된다.
- 9) 부산지역에서 창립된 최초 근대 극단은 요산 김정환이 만든 희망좌이다. 희망좌는 1946년 10월 경 오토 뮐러의 「하차」와 그레고리부인의 「달 뜰무렵」을 신고송 연출로 초량 대생좌에서 창립공연을 하는 바, 공연텍스트의 주제는 좌/우익의 이념대립으로 일어난 동시대 사회분열에 대한 민족애를 호소하고 있다. 극단 희망좌는 동시대 사회적 혼란상황에서 연극을 통하여 민족정신과 민족단결을 운동명제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부산지역 근대연극운동사의 첫 출발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10) 희망좌에 이어서 학생극 주도세력이 전문연극에 참여하기 시작하자 1947년 문예신문사가 주관하는 문인극회가 결성되지만, 전문연극운동체의 활동은 6.25전쟁 이후에 가능해진다. 부산지역에서는, 전쟁 전에는 보도연맹문화실과 경상남도문화실이 공동주관한 국민예술제에서 연극이 공연되기도 하며, 전쟁 중에는 육해공군정훈대의 연극공연, 극단 신희의 연극공연이 이루어진다. 특히 임시수도 부산에서 극단 신희의 활동으로 인하여 부산지역연극은 거의 사라진다. 부산연극이 다시 지역연극으로서의 독자성을 가지는 것은 전쟁이후에 가능해진다.

### 참 고 문 헌

- 고준석, 『조선공산당과 코민테른』, 공동체, 1989.
- 구명옥, 「광복기 부산 경남 지역의 연극」, 『작가와 사회』 (20호, 2005 가을호), pp.43~60.
- \_\_\_\_\_, 『부산경남의 지역연극운동 연구』, 부산대대학원, 2006.2 (박사학위논문)
- 김서민, 『한국연예인반공운동사』, 예술문화진흥회, 1989.
- 민병옥, 「근대 이후 부산지역 연극의 현황과 정체성」, 『2006 부산학연구』,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6.12, pp.183~236.
- \_\_\_\_\_, 「카프연극비평의 소통론적 연구」, 『한국민족문화 10』,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77, pp.265~312.
- \_\_\_\_\_, 『일제 강점기 재일 한국인의 연극운동』, 연극과 인간사, 2000.

- \_\_\_\_\_편저, 『한국연극공연사연표』, 국학자료원, 1997.
- 박영정, 「해방기의 연극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극예술학회』  
(제7집), 1997. 6, pp.163~201.
- 백현미, 『한국창극사 연구』, 태학사, 1997.
- 신태범, 「신태범의 부산문화야사(82)- 미술평론가 이시우」,   
국제신문 2001.7.24
- 안광희, 「해방기 학생극운동」, 『공연예술연구소논문집 2』,   
단국대 공연예술연구소, 1996, pp.62~102.
- 이근삼, 『서양연극사』, 탐구당, 1980.
- 이석만, 『해방기 연극 연구』, 태학사, 1996.
- 이진순, 『한국연극사(1945~1970)』, 대한민국예술원, 1977.
- 주정이, 「화가 주정이의 부산미술이야기(11)- 화단의 선비  
이시우」, 국제신문 2005.9.11
- 현재원, 『해방기 연극운동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박사학  
위논문), 2000.
- 倉林誠一郎, 『新劇年代記(戰前編)』, 백수사, 1972.
- C.Gore, 고영중 외 역, 『현대지역이론과 정책』, 한울, 1997.
- J.R.Short, 이현욱 외 역, 『문화와 권력으로 본 도시탐구』,   
한울, 2001.
- D.C.Pocock, Humanistic Geography and Literature, Indiana Univ.  
Press, 1992.
- F.N.Magill, Critical Survey of Drama, Salem Press, 1985.
- P.Hartnoll eds., The Oxford Companion to the Theat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http://www.nihon-u.ac.jp/>